

# 31기 호스피스 교육안내

## ● 제 31기 불교전문 호스피스교육 안내

- 일 정 : 2009년 8 월 1일(일)~8월 8일(일)
- 내 용 : 35개 전문과목을 통한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 대 상 : 스님 포교사 및 불교인으로서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
- 원서접수 : 홈페이지, 전화, 방문, 우편접수
- 교 육 비 : 65만원(학인스님 20%할인), 교재비 포함

## ● 21세기 보디사트바의 길!

오직 경험을 통한 자각과 성찰을 통하여  
 자신의 영성을 온전함으로 치유하고  
 고통에 직면한 중생들을 치유와 돌봄으로 함께하는 여정...  
 호스피스 전문가 과정에서 함께합니다.

나는 내가 죽음에 직면하도록 돕는데 만족을 느끼며,  
 나의 요구를 이해하는 민감하고 지각있는 사람에 의해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호스피스윤리 중에서



| 정토마을 마하보디교육원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전화 052)264-1007 팩스 052)264-0209

| 정토마을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17-1 전화 043)298-2258 팩스 043)298-1457

# 보디사트바

2010년 여름  
 제3권 제2호, 통권87호



Bodhisattva

여는 글	04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옵고	능 행
명법문 · 명강의	06	법화행자의 원력과 무루의 공덕	성 오
명상카툰	11	내가 지은 말과 행동	용정운
내 마음의 시어詩語	12	부처님 오신 날을 보내고	
법향	14	생의 마지막 여정을 저희가 함께 해 드리려 합니다	능 행
내 마음의 경구	23	입보리행론	
경전 이야기	24	현재의 매 순간을 온전히 살 뿐!	선 운
심리치유	26	예술명상놀이	이수경
의학이야기	28	수술 그리고 항암제 치료	김진목
만화로 만나는 트랙	32	마음의 꽃을 피우세요	최영순
임상의 숲	34	합장	김윤주
보디사트바 향기	36	신심명	
우리들의 이야기	38	하나, 선택(30기 호스피스 교육수료생)	
	40	둘, 행훈(정토마을 도감)	
	41	셋, 혜능(마하보디상담대학 행정실장)	
정토마을관자재회 소식	42	정토마을관자재회 소식	
자제병원건립대법회	44	자제병원건립을 위한 대법회에 함께 하신 분들	
자제병원	45	자제병원	
정토마을	46	정토마을	
후원 안내	47	후원 안내	
CPE 교육 안내	48	마하보디교육원 교육 안내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 안내	49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 안내	

· 발행처 정토사관자재회 · 발행일 2010년 6월 5일 · 발행 · 편집인 능행 · 등록 울산바01004(2008.4.11.)  
 · 기획위원 강옥희 최유 · 편집위원 김경오 김성규 박정선 상진 장용렬 · 편집장 수필  
 · 주소 정토마을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17 전화 043)298-2258  
 마하보디교육원 울산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전화 052)264-1007, 0117 팩스 052)264-0209  
 · 기획 · 편집 맑은소리 맑은나라 전화 051)255-0263 팩스 051)255-0953 · 제작 아띠울 | 비매품



##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옵고

능행 | 스님 · 마하보디교육원장

만산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생명들의 향기 법계에 그윽하니  
부처님의 대자대비 허공에 가득차네  
진리의 빛이여!  
중생들의 등불되어 억겁무명 밝혀주소서  
부처님의 자비를 향하여 두 손 모으옵니다!

후원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날을 정하고 달을 정하여 가족을 생각하고 찾아보는 것이 형식적인 느낌이어서 아쉬움이 남지만 마침 부처님 오신달이 함께하니 많은 분들이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 부처님께 연등공양을 올리고 부모형제들을 생각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언양과 정도에 여러분께서 밝혀주신 연등 예쁘게 걸어 두었습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항상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어 행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오색등이 푸른 나뭇잎과 조화를 이루며 자유롭게 자기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니 서로의 삶에 힘을 주어가며 그것이 무엇이든 나누는 삶이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4월 18일, 언양자제병원에서 혜국 큰스님을 모시고 봉행된 ‘천일애애향 행복기도’는 전국 각지 후원자님들의 참여와 헌신으로 여범하게 잘 치루어졌습니다. 함께 하신 정도가족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자제병원 건립을 위한 모금에 온통 마음을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봄이 저물었고 여름도 눈 깜짝하는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 참 빠르지요? 여러분들의 ‘천일애애향 행복기도’와 ‘연등공양’의 정성과 발원으로 올해 기공식을 원만히 거행하였으면 하는 염원을 가지고 부처님 전에 기도합니다.

걸음걸음 정성스레 병원건립을 위한 여정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천일애애향 행복기도 나눔을 통해 참여하고 싶은 후원자분들은 인터넷에 들어와 ‘능행스님’을 한글로 치면 참여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후원가족 여러분의 기도와 많은지지 부탁드립니다.

이순간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잘 가꾸시어 부처님의 가피 속에 지복한 삶이 되시길 빕니다. 卍

정도행자 능행 정경례



## 법화행자의 원력과 무루의 공덕

성오 | 스님



법화경살림기도 500일을 맞으면서 원장스님을 비롯해 많은 스님들이 보살심을 내고 정진하시는 원력과 법화경을 수행하며 독송하기 위해 동참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마라쥬 스님께서 법화경을 ‘묘법연화경’이라고 번역하셨습니다. 법화경을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사랑과 미움, 실패와 성공 등, 상반되는 경계의 변화에 현혹되지 않고 부처님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살면서 자신의 인격과 지혜를 완성해서 세상을 이상향으로 끌여가는 보살도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래수량품〉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이미 오랜 미진 겁 전에 성불하셨지만 중생을 위해 다시 오셔서 열반을 보이셨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중생은 부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나태해져서 수행을 게을리 하기 때문에 방편으로 열반을 보이셨지만 구원겁 전에 성불하시어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원력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부처님의 중생을 위한 서원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데는 두 가지의 힘이 있는데 그것은 업業의 힘과 원願의 힘이라고 합니다. 우선 업의 힘, 즉 업력이란 무명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몸과 말과 마음씀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모두 업력의 발동입니다. 좋은 대상을 보면 탐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는데, 이러한 탐심과 진심의 바탕 뒤에는 어리석음의 마음이 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경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재산과 명예와 이성과 잘먹고 잘사는 것과 오래살고 싶은 다섯 가지 욕망인데, 이를 추구하며 사는 삶은 마치 나방이 불을 쫓아 뜨거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업력에 의해 살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사윤회를 헤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업력이 무명에 뿌리를 하고 있다면 원력은 청정한 마음인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본성은 잃어버린 마음의 고향인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되 업력보다 원력에 살며 그런 생활을 하도록 자기 자신을 추스르고 정진해야 합니다. 아무리 업력에 익숙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업력은 무명심에서 일어난 것이기

에 청정심과 불성에 바탕을 둔 지혜의 칼로써 업력의 뿌리를 자르면 원력으로서 업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불자는 원력에 살기를 발원해야 합니다. ‘아무리 욕도를 윤회하더라도 반드시 깨달음에 이르는 보살행을 할 것이다.’라고 원력을 세우고 정진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행의 좋은 선연善緣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업보로 이 몸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보다 과거에 수분의 공덕을 지었기에 사람의 몸을 받고 법화행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다행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원력을 견고히 세우고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일생의 청산이고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임명종시臨命終時는 그 사람의 살았던 작용이 컨트롤 할 수 없도록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임종시가 다가오면 업의 세 가지 작용이 드러나는데, 업의 힘과 업의 표상과 그리고 내생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첫째 업의 힘, 즉 업력이 발동하는 것이며, 이 때 업력은 마치 마지막 촛불이 꺼지기 전 불이 꼭 일어났다 꺼지듯이 임종시에도 그 업이 기동처럼 일어나는데 그것을 업력의



발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살생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그것을 죽였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워하는 마음의 살생업이 발동하는가 하면, 탑을 쌓고 병원을 짓던 것을 좋아했던 사람은 ‘내가 더 많이 공덕을 지을 것을...’ 하는 불사를 더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의 업이 발동한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란 것은 원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연히 업력에 따라 발현되는 것입니다.

둘째 업의 표상은 업력의 불길에 상응하는 이미지가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영화 필름처럼 그 업이 선명하게 그림처럼 찬란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셋째 ‘갓따 니미따’ 라고 하는 것인데, 갓 따는 ‘가다’ 라는 뜻으로 내생의 표상이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좋은 업을 지은 사람은 좋은 업이 발동하고 좋은 업의 표상이 발동하면서 좋은 내생(來生)의 표상이 연결되어 필름처럼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 한 두 가지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면서 여러 가지 업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임명종시에 일어나는 마지막 일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죽어가는 환자를 어떠한 마음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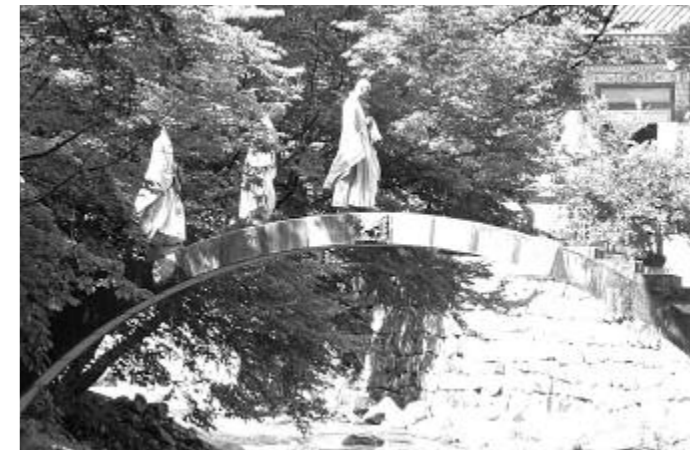
로 맞이하고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불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이 다음 생을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로 인해 임종자가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면 두 사람이 모두 좋은 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임종시에는 의지하는 것이 간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때 여러분은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도록 권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간곡히 권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임종자가 불법을 모르고 선업을 짓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 공덕을 짓는다는 것을 보여주어 그것에 의지처를 삼을 수 있도록 죽음의 여정을 도와야 합니다. 남방에서는 그런 사람에게 스님들의 가사를 공양하거나 탑을 짓는 선근공덕을 짓도록 권하여 그 사람 앞에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영가가 되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선근을 짓지 못하였지만 나의 자녀들이 공덕을 지으니 자손 덕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구나.’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것이 일념이 되어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종의 마지막 일념이 이렇게 일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고 중요하다고 부처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일화 한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애완건을 지극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애완건을 좋아하면 임종시에 애완건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전향되면서 축생의 태속에 들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행히 묘법연화경을 지극히 독송하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임종의 날이 다가왔고 의식이 가물가물하던 중에 뒤뜰이 보이면서 하얀 신선들이 바둑을 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정자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허공 중에서 “어찌 대승 경전을 읽는 묘법행자가 그 곳을 들어가려 하느냐?”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와 동시에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데, 죽음을 모면하고는 꿈이 하도 생생하고 신기해서 아픈 몸을 끌고 뒤뜰로 가보았습니다. 가서보니 벼짚이 다섯 단이 쌓여서 정자처럼 세워져 있었고 벼단을 열어보니 갓 태어난 하얗고 귀여운 고양이 다섯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묘법연화경을 지극히 수지독송한 행자가 아니었다면 고양이 태중으로 들어갈 뻔 했던 것이죠.

이렇듯 누가 우리의 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익혔던 업으로 따라갈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의



순간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며 내생에 태어나는 재생연결식이 발동하여 모태 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태 중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몸을 받거나 축생의 몸을 받는 것이죠. 이생의 삶이 이생뿐 아니라 내생도 연결되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설령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생에서 뉘우치고 다시 발심해서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업력에 살지 않고 지극히 원력에 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화행자들이 법화경을 수지독송하거나 사경하고 권선하는 것, 이것은 좋은 업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불사공덕을 스스로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선한 전법의 공덕이 이 세상뿐 아니라 임명종시에 분명히 좋은 업의 발동과 표상, 그리고 내생





의 좋은 표상까지 우리 앞에 축복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경을 읽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예배하게 되면 수많은 불보살이 그 도량과 그 가정에 강림하고 감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샅된 어떤 마군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대승경전을 독송하면 수많은 무리의 불보살과 옹호성중이 감싸고 보호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액난도 침범할 수 없고 길상과 건강과 행복이 그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예경하기를 중생계가 다하고 허공계가 다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독송하고 서원을 세우고 자제병원을 건립하여 모든 중생들이 다 영적인 행복과 건강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무루의 공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 치유하고 영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스스로 닦고 아는 만큼 전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법의 보시이고 법의 공덕입니다.

법화행자는 유루와 무루의 두 가지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유루의 복을 통해 넉넉하고 화평한 사회를 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불법수행을 하고 보리심을 발해서 내생에도 행복한 깨달음의 해탈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을 세우는 무루의 공덕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도량에 병원을 세워 영적인 평화를 추구한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합니다. 많은 병원이 있지만, 임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면서 내생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축복된 불사입니다. 이러한 병원 불사에 나와 더불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인연 있는 이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와 발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불사가 장애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부처님의 가피가 이루어져서 연화정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卍

◎ 성오스님 약력

- 1971년 봉선사 출가
- 1975년 해인사 강원 졸업
- 1990년 인도 뿌나대학원 졸업

- 1992년~2001년 미안마 위빠사나 수행
- 2001년 미국 원적사 개원, 수행지도
- 2008년 흥원사 주지로 역임



詩語



당신을 향해 소통의 언어 올리웁니다.  
당신을 향해 일체의 화합을 발원하웁니다.  
다시 당신을 위해 소리 없는 발원 올리웁나니,  
부디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고  
부디 연인을 만나 열싸안고 춤을 추듯  
보듬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턱밑에서 밝힌 연등  
우주에도 전해질 등불이 되겠지요.  
다시 연등에 불 밝히웁니다.  
우주에 전해져 다시 '나' 를 향하고 있을  
마음의 푸른 등.  
지금 당신을 위해 켜드리웁니다.

- 부처님 오신 날을 보내고



저희가 함께 해 드리려 합니다

능행 | 스님  
마하보디교육원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계사에 와서 여러분들 뵙는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쉼스러우며 제게는 영광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법석은 법회라고 하기 보다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살아온 여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자, 합장할까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께 귀의합니다. 널리 이로운 일에 능숙하여서 저희들이 평등의 경지를 성취하고자 하는 이런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귀하고 상냥하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아 저희 모두가 지금 이 순간 모든 일에 낱알이 만족할 줄 알아서 남을 공양하기 좋아하고 분주하지 않고 생활이 간소하며 온갖 마음이 고요하고 슬기로워서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집착하거나 성내지 말며 저희들이 말하는 한마디, 저희들이 하는 행위 하나, 저희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선업의 공덕으로 성취 되어지이다.

살아있는 생명이란 그 어떤 것이든 동물이거나 식물이거나 남김없이 모두가 다 그 생명이 소중하고 존엄하여서 나와 다르지 않음을 자각하고 깊이 알아서 모든 생명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기 발원하나이다.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바쳐 자식을 구하듯이 이와 같이 우리는 부모의 크신 은혜를 깊이 알고 무일공덕을 깊이 헤량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이며,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깊이 자각하여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그 까닭을 깊이 수용하고 그 모두를 나와 더불어 사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청정히 하면서 이웃의 고통도 나와 함께 나누며, 이웃의 기쁨도 나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임을, 아름다운 불자임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 삶의 선업이 공덕이 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업의 공덕이 되기를 발원하나이다. 이 모든 서원과 발원, 이 모든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 다 성취되어지이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원 범수사 가는 길목에 미원면 초정 온천

이 있는 곳에 '정토마을'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임종의 집이 있습니다. 정토마을 호스피스 요양센터를 제가 지어서 운영한 지가 지금 딱 만 10년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토마을을 지어 정토마을에서부터 죽어가는 사람들을 제가 부른 게 아니라 정토마을을 짓기 전에 이미 7년이란 세월 동안을 다른 병원, 우리 불교 병원이 없기 때문에 소록도나 꽃동네나 행려병동 있는 곳이나 이런 곳에 가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7년 동안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계사 법당의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행복하게 보여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밝고 건강하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몸에 병이 들면 어찌 그렇게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까요? 이것을 정토 마을 짓기 전에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우리 불자님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외롭게 죽어갈까? 하는 물음 앞에서요.

그 전에는 암이라는 질병이 텔레비전 연속극에서나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남자는 세 명에 한 사람, 여자는 다섯 명에 한 명 꼴이 암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암환자를 집중해서 돌보기 시작했는데요, 암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죽음의 여정을 함께 하게 된다고 표현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보고 느낀 우리 불교인들의 죽음의 현장은 아주 슬프고 고통스럽고 또 외롭게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불교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우리 불교가 그동안 유교 이후의 불교의 문화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 지금 머리가 회쫂회쫂하신 여러분들이 모든 주인이 되지 않았을까? 기와 한 장, 기둥 하나, 서까래 하나 대한민국 사찰 어느 하나에 여러분들이 시주 안 한 곳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공덕으로 대한민국의 불교는 굉장히 찬란하게 복원이 됐는데 우리들의 죽음은, 우리들의 마지막은 너무 피폐해져 있고 방치되어 있고 여러분들을 돌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 불교가 이렇게 재건되고 다시 제 모습을 갖추는데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일부를 헌신했고 조건 없이 그 곳에 쏟아 부었는데, 왜 여러분들이 죽어갈 때는 이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가야 하나? 그것이 저를 참 슬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때 당시에는 천주교 병원,

기독교 병원, 천주교 신자, 기독교 신자들이 병원에서 진을 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얼마나 많이 개종을 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부처님 품안에서 죽어가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내가 금생에는 열심히 수행해서 성불을 할 것을 뒤로 미루겠다. 성불은 다음 생으로 미루고, 금생은 내가 일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죽음이 안전하고 외롭지 않고, 평온하고 평화롭게 모든 이들이 잘 죽어서 다음 세상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모든 이들이 한 생을 바쳐서 이 불교를 이룩하는데 헌신하는 것이 보답이고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라는 책을 낸 2005년도인데, 어떤 스님께서 선방에 계시다가 폐암이 걸려서 천주교 병원에서 임종을 하는 그 상황에, 제가 그 분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 분께서 임종 시에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능행스님은 지금 금방 안 죽을 거니까 살아서 병원을 좀 지어서 우리 불자들의 죽음을 덜어주고 우리 스님들의

죽음을 좀 돌봐줄 수 없겠느냐”고 한 사오일을 죽지 못하고 저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 참 그 무겁고 힘든 유언을 제가 받아 지니고 1999년도에 정토마을을 지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이면 한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삶을 마감하는 것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서 좋아져서 퇴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1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들어올 사람은 너무 많은데 병실이 부족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쳐들어와요. 환자를 데리고. 그러면 환자가 병실 바닥에 눕기도 하고. 또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병원을 다시 짓겠다는 서원으로 100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승과 재가를 따로, 그리고 이제는 옆방에서 죽는 소리가 옆방에 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다섯, 여섯 명이 한 병실에 있는 게 아니라 각각 혼자 병실에서 내 가족과, 아니면 스님들과 함께 조용히 내 마지막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한 번 지어보겠다. 그렇게 발원하고 제가 3년을 기도했는데, 돈도 안 생기고 땅도 안 생기는 거예요.

병원 짓기에 턱 없이 부족한 액수 밖에 모금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000일 기도 회

향 때까지 돈이 안 생기면 저는 이제 그만 할랍니다. 그리고는 송광사 방장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 스님이 돈을 좀 많이 주셨거든요.

“스님,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돈도 안 생기고 땅도 안 생기고 돈이 있으면 땅이 없고, 땅이 있으면 돈이 없고 안 맞아서요.”

그랬더니 소리를 그냥 벼락 같이 치시면서, “가서 다시 기도해라. 보궁에 가서 다시 기도해라!” 그래서 저 쫓겨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보궁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보름 기도를 하고 내려오니깐 일주일 안에 땅이 생겼어요.

그것이 지금의 석남사 바로 밑에 있는 마하보디 교육원입니다.

땅을 사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정신이 얼떨떨한 게 그 다음에 어떻게 지어야 할 건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뭐가 문제인가?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많이 생기고 왜 이렇게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고 죽을 때에 왜 이렇게 연극 같은, 희극 같은 드라마 같은, 갈등과 고통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무슨 애긴지 아시겠어요?

천 사람의 죽음이 천 가지로 다르고 만 사람의 죽음이 만 가지로 다른데, 행복한 죽음은 거기서 천 명이 죽었다면 다섯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불교인들이 겪는 죽음



의 현실이에요. 천 명이 죽었다면 다섯 명도 지금까지 수행하고 공부하는 이 여여한 이 모습으로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인연에 얽히고 물질에 얽히고 온갖 고통과 원한에 얽혀서 돌아가시는데 뭐가 문젠가? 왜 이렇게 죽음의 질이 떨어져야 하는가?

우리 마음 속에는 풀지 못한 원망심과 미움과 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원통함. 절통함. 섭섭함. 또 그것뿐입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죽으려니까 못 죽는 거예요. 건강할 때, 행복할 때, 사대가 강건하고 육근이 청정할 때 이 가슴에 맺힌 한을, 원통함을, 섭섭함을, 화해하고 용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떤 어머니가 서른여덟 살에 임종을 하는데, 시집을 와서 자식을 못 낳아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임종을 했는데 눈을 뜨고 죽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눈을 감고 가시라고 감겼어요. 그런데 한 일 분이 되니 눈을 다시 뜨는 거예요. 또 눈을 감겼어요. 감고 가라고. 갔다가 다음 생에는 애기도 많이 낳고 아름다운 여자로 태어나서 사랑받고 하라며 또 감겼어요. 또 눈을 꼭 뜨는 거예요. 다섯 번을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는 수건

에다 물을 묻혀서 눈 위에 올렸어요.

남편은 혼비백산을 해서 도망을 갔어요. 시어머니는 무서워서 들어오지도 못해요. 어머니가 나를 구박해서 너무 너무 상처 받고 섭섭하고, 마음이 너무 너무 아프다고, 한 마디만 했더라면 눈을 감고 갔을 텐데 그 말을 못하고 한이 맺혀서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오늘 계신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눈 딱 감고 뒤도 안 돌아보고 잘 있어라. 나는 간다고 갈 수 있으시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의 임종을 돌봐주는 전문가를 만들어야지만이 여러분이 갈 때 일대 일로 붙어서 여러분을 잘 돌봐드리고 마음을 알아드리고 상처를 치유해드리고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래서 한을 풀고 미움을 다 가시게 하고 용서하고 가도록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살았을 적에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게 응어리가 되어서 암이 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기 전에 예방책으로 임상교육원을 지어서 암이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치유 받는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돌



아가실 때 여러분들을 잘 돌봐드릴 수 있는 전문가를 먼저 배출하고 그러면서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일 년 만에 한 30만부가 나가서 그 돈으로 벽들을 사고 교육원을 개원하고 호스피스 교육을 했어요.

우리 죽음이 안전하고 훼손되지 않으려고 하면 죽음을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스피스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제병원을 짓기 위해

<이순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불과 한 일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을, 고단하고 괴로울 때 놓고 읽어 보시면 참 많이 힘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이 가면 이 책을 사서 누구를 주지 말고 꼭 내가 가지고 아주 조용한 시간에 마음을 내어서 읽어보면 “아, 나는 이렇게 죽으면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이렇게 죽겠구나” 하는 답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조계사에 왔더니, 보살님들이 절 뒤에서 불기를 열심히 닦더라고요. “보살님은 다음 생에 극락 세계 가지겠습니다.” 그



랬더니 “왜요?”, “이 공덕으로. 이 선업의 공덕으로 가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노래를 부르며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가신 분이 있었어요. 뭐하시던 분이고 하면요, 송광사 구산 큰스님께 ‘나무아미타불’을 받아, 염불 정진하면서 마흔 다섯 살에 다 털고 송광사 가서 뭐했냐면, 스님들 옷을 기워주고 좌복을 기워주고 떨어진 이불을 기워주는 바느질을 하는 보살님이었습니다. 그 분이 최장암으로 돌아가시는데 통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분이 가실 때는 “스님, 나는 가요. 스님 이따가 다음 생에 스님은 극락으로 오세요. 우리 거기서 만납시다. 스님, 나는 갑니다.”하며 손을 흔들고 가셨어요. 손 흔들고 가는 사람 처음 봤어요. 손 흔들고. “스님, 이따 오세요.” 그렇게요.

그분은 아들딸이 다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토마을에 가서 능행 스님 옆에서 죽을란다.” 그리고 오셨어요. 와서 석 달을 살다 가시는데 너무너무 깨끗하게 가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앉아서 스님, 나는 오늘 갈라요. 그래서 요구르트를 하나 드렸더니 요구르트를 먹고 가요. 진짜 요구르트 마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 분이 누구시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

분들처럼 기와 불사하고 기도 보시하고 또 뭐 털어서 부처님 조성하고. 그렇게 하고 살았던 정말 숲 속의 풀꽃 같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 드릴까요?

우리가 대웅전에서 기도하고 또 법문 듣고 하는 거 정말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의 말씀요. ‘인생에 있어서 생사가 대사다. 그 어떤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을 때다.’ 어떻게 죽느냐가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나는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모도 내가 선택하고, 형제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나라도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구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죠? 그리고 불법이 풍성하게 함께 하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에 내가 태어나서 다시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다시 내가 한 생을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에 일타 스님께서 가실 때에 그러셨죠? 나는 미국에 태어나겠다. 여러분은 어디 태어나실 거예요? 어느 나라에 태어나실 것이며, 어떤 부모를 선택하실 것이며,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고 살 건지 생각해 보셨어요?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안 하셨네요.(웃음)

여러분이 마지막 여정을 할 때는 여러분들

이 어떻게 살았냐의 진가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진실하고 명명백백해요. 선업을 지은 만큼 그 선업은 나의 업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선하고 남을 통해서 이타행을 실천하는 그 유한한 공덕 말고 무한한 공덕, 조건 없이 나누는 그 마음, 그 선업은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 저 생을 건너가는 배가 되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고 형제가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죽을 때는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죽을 때는 뭐가 영향을 미치냐 하면, 여러분이 지어놓은 선업,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착하고 선한 업만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모 형제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바로 나의 업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어저께 어버이날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린이날은 억수로 분주하고 바쁜데 어버이날은 한가하다구요. 아! 그렇구나. 참 이게 시대의 실상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가 이 자식 오기를 눈을 부릅뜨고 안 죽고 못 죽고 기다릴 때 이 자식이 안 오면 저는 제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미안해지거든요.

그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어요? 여기 지금 저희 속가의 어머니 연세쯤 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아마 그 시절에는 다 비슷했을 거 같아요. 정말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않고 저희들을 키우고 먹이고 일생을 바쳐서 공부시키고, 자식이 전부이고 인생의 다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온 내 어머니들이 다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가 천 년이 지난들 우리 어머니를 만날 것이며, 만 년이 지난들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만날까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다른 모습이지 이 모습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헤어지면 천만 년이 지나도 다시 만나지 못하고, 다시 보지 못하고 다시 부르지 못하는 것이 이생에서의 이별인 것입니다.

제가 보는 그 마지막 임종의 현장에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할 때 현금 아까워하지 말고 다 쓰시라고. 제발 좀 남겨놓지 말고 가시라고. 땅도 집도 팔아가지고 자금으로 만들어 선업의 공덕도 많이 짓고. 다 내려놓고 자유롭게 사시다가 마지막에 가셔야지요.

저 카네이션이 저게 무슨 의미예요? 저거 달면 뭐하겠냐고. 갈 때 내가 내 자식 손 한번 잡고 가 볼 거라고, 그 새끼를 뺨뺨이 빠지게 노력해서 키웠는데, 그 손이 없는 거예요. 그 손이. 그럼 이 손이 그 손이 되어준들





이 손이 얼마만큼 그 마음을, 그 그리움을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부릅니다. 외로이 생을 마감하는 많은 불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자식이 되어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어 노래를 불러드려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아버이 은혜'. 그러면 죽은 송장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3일이 지났는데, 제가 이 노래를 불러드리니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숨이 끊어졌다고 정말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모든 아버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불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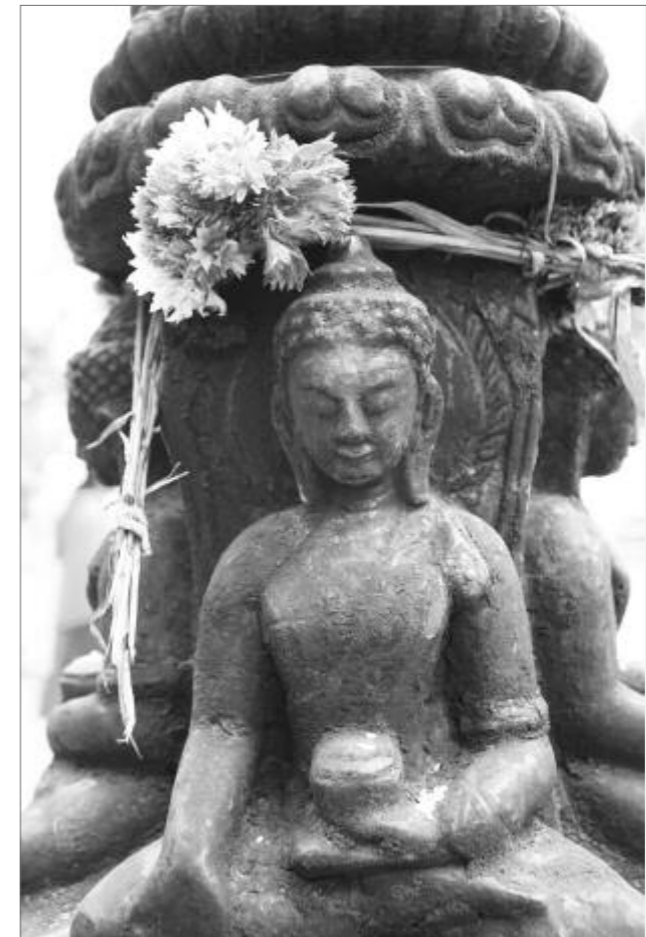
낮으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아버이의 사랑은 한이 없어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많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저희들이, 저희 공동체 스님들이, 이 일을 함께 하는 많은 스님들이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쓸쓸하게, 너무 고통스럽게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 호스피스를 수행 삼아서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삶을 잘 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병원을 잘 지어서 여러분들의 그런 간곡한 마음에 보답하고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스님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 이 병원 다 지어 놓거든 오십시오. 초대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그때 와 주실 거죠?

그때 오시면 저한테 "스님, 제가 조계사 선방에서 스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아직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제가 그런 병원을 지을 때까지 절대 아프지 않을 것, 절대 죽지 않을 것,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卍



보리심을 일으키면  
윤회의 쇠사슬에 얽매인 가련한 자도  
보살이라 불리며  
세간의 천신과 사람들이 함께 받듭니다.

- 입보리행론

※ 위 법문은 지난 5월 9일 서울 조계사 초청법사로 초대되어 법문하신 스님의 법문을 옮긴 내용입니다.



# 현재의 매 순간을 온전히 살 뿐!

선운 | 스님

더딘 봄날의 산색이 연두빛으로 물들어 갈 즈음 도반스님에게서 부고를 받았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적막한 슬픔과 침묵이 감도는 빈소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어깨를 도닥여 주는 것이 전부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맑은 정신을 놓지 않으셨던, 부친의 죽음 앞에서 함께 한 일주일의 시간은 출가자에게도 아쉬움으로 남아 '좀 더 살아계셨더라면...' 을 몇 번이고 되뇌이게 하였다. 이처럼 우리에게 별안간 찾아오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부처님에게 어떤 사람이 제자들의 모습이 왜 그리 밝은지를 묻자,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으며, 미래를 가꾸지도 않는다. 그들은 현재를 살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이 환한 것이다. 미래를 설계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는 바보들은 잘려진 갈대가 햇볕에 마르는 것처럼 말라갈 것이다.”

우리가 지나가 버린 일에 미련을 갖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전전긍긍도 해봤지만 결국 지금의 자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던가.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에게 닥친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현재의 순간에 머물며 마음을 온전히 그 순간에 두라고 한 것이다.

부처님이 한 때 싸밧티에 머물고 있을 때, 낮에는 잠자고 저녁에는 일어나, 넓은 장소에 모여 세속적인 화제를 나누며 시간을 소비하고 있던 젊은 수행자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앉아라. 잠을 자서 너희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 받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잠이 도 대체 웬말인가. 일어나서 앉아라. 평안을 얻기 위해 철저히 배우라. 그대들이 방일하여 그 힘에 굴복한 것을 죽음의 왕이 알고 현혹하지 못하게 하라. 거기

에 신들과 인간들이 기대고 바라는 그 애착에서 벗어나라. 찰나를 그냥 보내지 마라. 순간을 헛되이 보내면 지옥에 떨어져 슬퍼하기 때문이다. 방일하는 것이야말로 언제나 티끌이다. 티끌은 방일하는 것 때문에 생긴다. 방일하지 않고 밝은 지혜로서 자기에게 박힌 화살을 뽑아라”

불교는 단순한 귀의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 부처님은 스스로 올바른 지혜를 얻어 행복할 수 있었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은 부처님 능력 밖의 일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고통 속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평안하게 이끄는 것은 결국 각자의 몫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초대하지 않아도 다양하게 찾아오는 고통들이 정말 불길한 것일까? 브랜드박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나병환자가 끔찍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살을 썬게 만드는 병원체 때문이 아니라 팔, 다리에서 통증의 감각을 잃게 만드는 질병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통증의 불쾌감이 몸에 닥친 위협과 상처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것이다.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삶의 문제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듯이, 육체적 통증의 목적을 이해하면 통증이 생길 때 겪는 고통을 줄일 수 있기에 고통에 따른 통증이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결국 고통은 자신을 행복으로 이끄는 스승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행복을 실현하려면 다양한 굴곡을 지닌 삶속에서, 그것이 괴로움이든지 즐거움이든지간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안목과 끊임없는 수행이 필요하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체내에서 영양분이 되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행복에 관한 적극적인 실천이 자신에게 흡수될 때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무성하게 자라날 잎사귀 위로 자유로이 뛰어다니는 저 햇살처럼, 모든 존재가 삶 속에서 마주치는 고통의 순간이 바로 행복의 신호탄임을 자각하며, 현재의 순간을 만끽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한다. 卍

※ 선운스님은 현재 정안사에서 신도들에게 명상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enjoypresent@hotmail.com

### 참고 경전

『숫타니파타』소품 中 ‘용맹정진의 경’





## 어린이 심리치료의 새로운 접근 예술명상 놀이

이수경 |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교수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어린이 심리치료를 위한 연구는 소아정신과에서 실시하는 의학적 접근 및 치료에 관한 내용과 놀이, 미술, 음악, 드라마 언어치료 중에서 주로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한 치료결과에 대하여 발표한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본고에서는 어린이 심리치료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통합적 예술명상놀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명상**이란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하나로 집중하는 것으로 자기내면을 지켜 보는 것이며, 마음을 정화시키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감각·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마음의 평정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명상은 마음의 부정적인 속성을 정화시키고, 긍정적인 자질을 증진시키면서 마음을 올바르게 한다.

명상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실제 명상을 실시했을 때 불안, 우울, 스트레스, 공격성 등이 점점 줄어들고 기쁨, 행복, 평온함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가 향상됨을 볼 수 있다. 불교의 수행에서는 인욕, 관용, 친절과 같은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는 것이 분노, 증오, 애착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을 점점 소멸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감정을 변화시키고 부정적인 생각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뇌 과학 연구에서 나타난 사실이며, 자비심과 사랑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키우는 것이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달라이라마의 사상을 뒷받침한다.

어린이 심리치료를 위한 예술명상놀이는 성인을 위한 정적인 명상과는 달리 어린이 발달 단계와 흥미에 적합하게 계획되고, 감각을 통한 탐색과 창의적인 표현활동인 예술놀이로 실시되었을 때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그림그리거나 만들기 등의 시각적 미술 표현활동과 진흙 및 자연물을 탐색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살펴보면서 얻을 수 있는 심미적 체험과 자연물과 교감하는 자연명상놀이 및 미술품 감상, 탐색활동, 창의적인 몸동작 표현, 즉흥적인 드라마 놀이, 동화 및 시 등을 읽으면서 느낀 정서 표현하기, 음악 감상 및 표현놀이 등의 예술놀이를 명상과 함께 실시하는 것은 창작활동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심리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줄 뿐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개념 및 창의적인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심리치료를 위한 어린이 예술 명상놀이는 다음과 같이 진행 될 수 있다.

- 1단계 : **이완명상** - 간단한 요가동작을 하면서 몸의 각 부분을 느끼면서 긴장을 이완시킨다.
- 2단계 : **호흡명상** - 자연스럽게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한다.  
숨을 들이쉬면서 사랑, 평화의 에너지를 들이쉬고, 숨을 내쉬면서 슬픔, 화, 짜증, 미움 등의 부정적인 느낌을 코를 통해 밖으로 내보내게 한다.
- 3단계 : **집중명상** -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신체 한 부분(윗 입술부분)에 주의를 집중한다.
- 4단계 : **자비명상** - 따뜻한 자비심 키우고, 자비명상을 한다.  
우리의 마음을 바르고 지혜롭게 하며, 스스로를 사랑하고 살아 있는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보내는 명상을 하도록 한다.
- 5단계 : **창조적인 예술표현명상 놀이** - 명상 이후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창조적인 예술 활동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卍

### 참고도서

이수경(2006). 어린이 인성교육을 위한 자연명상프로그램, 서울 :양서원.  
(2009). 명상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창의적 그림 표현에 미치는 효과, 조형교육 제 35집, 한국조형교육학회, pp.231-257.





# 수술, 항암제 치료

김진목 | 파라다이스병원장

## 수술

**암**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누가 뭐라 하든 수술적 제거이다. 수술이야말로 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즉, 중앙이 국소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1기, 2기 및 3기의 일부)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수술적 제거이다. 이미 수술에 의해 완전하게 암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된 종양을 제거함으로써 신체 내의 면역체계가 나머지 악성 세포들을 제거하거나 그 성장을 제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 또한 완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30년간 수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마취, 항생제, 중환자실에서의 집중 치료에 대한 이해와 방법 등의 발전에 힘입어 불과 30년 전만 해도 수술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었던 3기 암에 대해서도 수술적 치료를 행하고 있으며, 삶의 기간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광범위한 수술이 꼭 훌륭한 수술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수술 그 자체가 환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기도 한다. 광범위한 수술의 진정한 가치는 수술 자체로 인한 삶의 연장 효과보다는 수술 후의 삶의 질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췌장암 환자에서 췌장 전체를 제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수술 직후 환자는 높은 사망률을 보일뿐더러 생존한다 하더라도 여생을 만성적인 병약상태로 지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과의사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외과의사가 열 명의 환자를 수술했는데 그의 기술적인 능력과 관계없이 2명의 환자가 2주후 심각한 수술 부작용으로 사망하고, 7명의 환자가 수술 후 암의 재발로 1년 내에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잠정적으로는 1명의 환자만이 완치를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외과의사는 10명의 환자 중 단지 1명만이 수술적

치료에 의해서 성공을 했다고 견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성공한 1명이 되기를 원하겠지만 그 확률은 10%밖에 안 되는 것이다.

광범위한 수술이 반드시 최선이 아니라는 사실은 유방암 환자의 경우에 잘 나타난다. 볼티모어 존스 홉킨스 병원의 윌리엄 홀스테드에 의해 창안된 광범위 유방절제술이 오랫동안 유방암의 표준 치료법이었다. 이 수술은 전체 유방을 제거하고 종양을 덮고 있는 피부를 원형으로 크게 제거하며, 어깨에서 출발하여 종양 아래쪽에 있는 2개의 주된 흉벽 근육을 조심스럽게 갈비뼈에서 분리하여 제거하고, 겨드랑이 주위의 임파절을 분리하여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는 수술법이다. 이는 한쪽 유방이 없어지는 것뿐 아니라 근육을 제거함으로써 함몰이 생기고 보기 흉한 상처를 남기며, 임파액의 순환을 방해하여 평생 한쪽 팔이 통통 붓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매우 광범위하고도 많은 장애를 남기는 수술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종양을 제거하고 주위의 임파절을 제거한다는 기본 수술 원칙을 만족시키면서 수술을 받은 많은 환자들이 오랫동안 생존하는 것으로 보

아 완치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유방 광범위절제술은 곧 표준 치료로 인정받게 되었다.

1950년대 초반에 핀란드에서는 유방종양 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오히려 유방 제거술보다 더 좋은 생존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그 후에도 연구 결과 치료 방법을 달리 해도 그 생존률은 변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광범위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군과 수술후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의 사망률은 다르지 않았으며,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군의 사망률조차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암세포를 포함하여 임파절을 함께 제거하는 광범위 유방절제술 단순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생존률에 차이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아마도 임파절이 암을 물리치는 신체 내의 방어기전을 담당하는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인체 내의 자연 방어기전은 수술후 잔여 암세포를 제거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수술을 비롯한 모든 암 치료법의 선택시 자연 방어기전에 대한 주의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 항암제 치료

오상적인 항암제는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죽이면서 모든 정상 세포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화합물 일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이런 화합물을 찾는 노력 아래, 현재의 항생제 치료의 성공을 가져왔다고도 할 수 있다. 항생제는 인간과 세균 사이의 서로 다른 대사적 차이점을 이용하여 세균은 파괴시키면서 인체에는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암세포는 외부의 침입자가 아니라 인체 내의 정상적인 세포가 약간 성질이 변한 것이며, 또 변하기는 했지만 어떤 다른 조직의 세포보다는 본래의 조직과 성질이 가장 비슷하다. 예를 들어 위암 세포라면, 인체의 다른 부위의 정상 세포보다도 오히려 정상 위 세포와 성질이 가장 많이 닮았으며, 이런 암세포들은 그것이 정상이건 암세포이건 간에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형제, 부모, 조부모의 어떤 세포와도 다르다. 따라서 암세포가 세균의 경우처럼 대사과정 및 근원이 모세포와 다르다고 가정하고 항암제 치료를 함으로써 없애겠다는 근본적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항암제 치료의 기전은 암세포가 정상 세

포보다 빠른 속도로 분화한다는 가설에 근본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위 점막과 골수 등은 정상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암세포보다 그 분화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항암제 치료 후에 부작용으로써 빈혈, 면역계 손상, 위장장애 증상, 머리 카락이 빠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장기간 계속해서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면 암에 의해 환자를 잃기 전에 항암제 때문에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분별없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치료를 할 경우 이런 비극이 일어날 것은 예견되어 있는 사실이다. 인간의 면역 시스템은 암세포를 죽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 이 면역계도 파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항암제를 써서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하나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많은 종류의 항암제가 쓰이고 있고 병합요법이 효과를 상승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서로 다른 세포분화과정에 관여하기 위하여 두 약제를 병합하는 것이 각각 하나씩 썼을 때 보다 효과가 큰 것은 사실이다. 현재는 항암치료시 2개 이상의

약제를 병합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항암제로 완치될 수 있는 암은 극히 제한적이다.

항암제 치료 후 환자들은 치료 이전보다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다. 최상의 경우에 성공률은 20% 정도이다. 그나마 이런 성공은 성인의 고형암의 경우이며, 몇 개월을 지속할 뿐이다. 성공적인 반응을 보여 암이 줄었다 할지라도 다양한 형태로 재발되며, 불유쾌하고 비참한 경험을 하면서 단지 몇 개월을 유지할 따름이다.

종양이 국소적이고 수술이 가능할 경우에는 수술적 제거가 최선의 치료가 될 것이다. 종양이 국소적이기는 하나 그 범위가 넓고 주위로 침범한 경우에는 수술과 병행되거나 혹은 단독적인 방사선 치료가 최선의 치료법이다. 암이 이미 넓게 전이된 경우에는 항암제 치료가 유일한 치료법이다. 항암제 치료를 시행할지의 여부는 그 예측되는 반응도에 따라서 의사와 환자 본인이 결정할 문제인 것이다. 치료에 따르는 의료비 역시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이

면서도 치료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환자나 환자 가족들에게 경제적 고통만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치료 자체만을 위한 치료는 일종의 최악일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의사와 환자 본인에게 주어진다. 비록 어떤 결정이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환자는 치료받을 것을 갈망하게 되며, 의사는 이에 어떤 치료라도 해줘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치료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체의 자연적인 방어기전이 그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는다면, 이를 통해서 질병을 약화시키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항암제 치료의 가장 큰 단점은 항암제 자체가 인체의 이러한 방어기전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는 사실이다. ㄸ





# 마음의 꽃을 피우세요

최영순 | 만화가



## 최영순

강릉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서 소설을 공부했다. 철들기 전에는 학교 대신 강릉 남대천 하구의 역새밭에 누워 있거나 어두컴컴한 싸구려 극장에서 하루를 보내곤 했고, 철든 후엔 '자비원'이라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길 잃은 아이들과 함께 뒹굴며 한 시절을 보냈다.

1999년부터 본격적인 만화 작업을 시작했다. <불교신문> <스포츠신문> <굿데이>를 비롯한 여러 신문과 <현대모터> 등 사보에 만화를 연재했다.







# 합장

김윤주  
정토마을 간호사

정토마을에 처음 제가 출근하던 날은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지금은 산마다 진달래가 피는 봄이네요. 저희 정토마을 마당에도 꽃들이 피기 시작했고 누런색의 잔디에도 초록 빛갈이 돕니다. 이렇게 병실 밖에는 봄이 왔는데 벽 하나 사이의 병실에는 아픔으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서 힘들고, 병으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혼자 견뎌내야 하는 날들이지요.

2월 초쯤 합천에서 할아버지 한분이 정토마을에 오셨습니다. 연세가 90세이신 할아버지는 두 달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 중단하시고 저희 정토마을로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연세에도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자전거도 타셨고 몸을 쉬지 않고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며 할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의 듣지 못하시고 거동도 혼자서는 하기 힘들어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보호자 분으로는 스님이 같이 계셨는데 받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드님이 출가 하실 때도 반대하지 않으시고 허락해주셨습니다.

처음 오셔서 며칠은 죽이나마 혼자 손수 드시고 잠깐이라도 앉아 계실 수 있었지요. 소변줄을 하고

계셨는데도 화장실에 가서야 된다고 하실 때에는 그나마 기운이 있어보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드시던 죽의 양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치매 증세도 심해지고 황달에 복수까지 차니 할아버지는 몹시 힘들어 하셨습니다.

평소에 경經을 많이 보신 할아버지는 스님이 큰소리로 귀에 대고 “아버지 나무아미타불 염불 많이 하세요.” 하면 기운이 없으신 데도 입을 겨우 열어 몇 번 하시곤 했습니다. 낮에는 스님과 할머니가 할아버지 옆에 같이 계셨고 밤에는 할아버지 혼자 계셔야 했습니다.

새벽2시가 되어 할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시지 못하고 얼굴을 비스듬히 들어 침대 난간에 대고 두 손으로는 침대 난간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일어나서 어디를 가시려고 하는걸까요.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할아버지를 편안히 눕혀드리고,

“할아버지 어서 주무세요.”

말하고 저는 합장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만히 저를 보시더니 천천히 팔을 들어 합장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당신 몸은 많이 힘드시고 지치고 정신도 맑지 않으실텐데 할아버지는 합장을 해주셨습니다. 합장하신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있으니 할아버지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할아버지는 임종을 하셨습니다.

저녁 무렵 죽을 조금 드시고 주무시는 듯이 가셨다고 근무인계를 받으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편안하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계셨던 빈 병실에서 합장합니다. 卍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음ियो,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 신심명



우리들의 이야기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으며  
우리들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차가운 봄날,  
'천일애 행복기도' 를 울리며  
우리 모두는 다시 단단해 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여름이 주인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행복해져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두 팔을 벌려 반길 것입니다.

그토록 무량한 힘을 얻어  
힘든 사람들의 벗이 돼 드리겠습니다.

**하나,** 선덕(30기 호스피스 교육수료생)

**둘,** 행훈(정토마을 도감)

**셋,** 혜능(마하보디상담대학 행정실장)



## 참회, 사랑 그리고 자비

선 덕 | 30기 호스피스 교육수로생

수행자라면 누구나가 한번쯤은 마음의 무거운 걸망을 메고 만행으로 방황 아닌 방황을 느껴 봤으리라. 나 역시 길고 긴 방황을 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5개월 동안의 나의 방황은 만행을 통해 끝이 났다. 자신을 찾으려 애를 쓰고 헤매며 얼마나 갈등했던가? 수없이 많은 생각과 번뇌망상 속에서 그 얼마나 가슴 아파했으며 부족하고 못한 자신을 탓하며 그 얼마나 책망했던가? 그러던 중 지난 겨울 우연히 말로만 듣던 호스피스 교육을 받게 되고 마하보디교육원과 인연이 되어 나의 길고 긴 방황은 막을 내렸으며 어느새 나는 이곳 마하보디교육원에서 매일 법화경을 독송하며 참회진언을 염송하고 있다.

“은 우주에 가득하신 불보살님이시여! 비구니 선덕이가 지금 법화경을 독송하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오랜 세월을 윤회하며 지은 죄업을 참회하옵니다.

참회진언 <옴 살바뫼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시방법계에 항상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살피시는 불보살님이시여! 생사의 고통에 헤매는 모든 이들에게 본 고향으로 돌아갈 편안한 안식처이자 수행처가 될 자제병원 원만불사 성취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하옵니다 …

… 은 우주에 가득하여 아니 계신곳 없는 불보살님이시여! 비구니 선덕이가 지금 법화경의 독송을 끝냈습니다. 세세생생 지은 죄업을 모두 참회하옵니다.

참회진언 <옴 살바뫼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이제 이 경 읽는 공덕을 중생들의 의지처이자 수행처인 자제병원 불사의 원만 성취에 돌립니다.”

나의 참회진언과 법화경 독송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곳 자제병원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불법으로 인연이 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는 귀한 이 사랑을 나는 영원히 꽃피워 갈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을 접고 시간과 세월이 아닌, 부처님께 맡기고 걸림 없는 수행 속에 자제병원 건립불사 무사회향을 발원하며 늦게나마 초심으로 돌아가 기도에 임하고 있다.

모든 것은 자신이 부족함에 원인이 있었음을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어느날 걸려온 닢익은 전화목소리 정토마을 행훈스님과 능행스님의 통화 내용 중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순간 찰나에 마음을 바꾸고 나니 그 무거웠던 마음의 짐들이 말끔히 벗어져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한결 평온한 마음으로 자연의 위대함을 마음껏 즐기며 느끼고 자연과 더불어 오늘을 살고 있다. 모든 것은 자신이 부족함에 그 원인이 있었음을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꽃이 피고, 지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고 진리인 것을! 그 모든 것을 순응하며 산다는 것은 단순하지만 얼마나 위대한 진리이던가?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오늘을 살기까지 나의 생활은 정말 숨막히는 생활이었고 내일에 대한 기대보다는 하루를 살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만이 존재했던 시간들이었다. 이런 시간을 거쳐 오늘에 오기까지 부처님의 가피를 내 어찌 잊을 수 있으리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자제병원이 완공되는 그 날까지 열심히 기도로서 정진하며 살아갈 수 있길 부처님 전 발원하며 새벽 알람소리에 눈을 뜨면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그저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한다.

저녁이면 두 번 다시 내일 눈을 뜰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를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참회하며 마음의 정리를 하게 된다. 참회를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이 그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새삼 발견하고 느끼게 되었다. 자신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가 그 무엇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곳에 와서 생활하며 다른 스님들을 보며 느낀 것은 그 무엇에도 걸림없이 자유롭게 각자 맡은 소임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다.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만 가는 산과 들을 보며 내 마음 또한 성숙하고 깊어지리라.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스님들과 반연들, 종무소와 후원의 보살님들께도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이다. 卍





## 고운님

행 훈 | 정토마을 도감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나의 고운님  
긴 세월 잊고 살아온 나의 고운님

봄 비 잔잔히 오시던 그 날밤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만났네  
지붕위에 알알이 떨어지는 소리에 잠 깨어  
그 고요함을 그윽하게 마음에 담았더니  
어느새 안개 걷히듯 스프르 열린 가슴  
그 곳에 내 고운님  
다소곳이 웃고 있었네

아! 내 고운님  
나의 고운님이여  
그토록 오래 돌보지 않았음에도  
그토록 오래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고운님  
어쩔 그리... 자태도 고와라

고운님 자태에 내 마음 설레이고  
설레이는 마음 만큼  
우리 고운님  
더욱 고와라 卍

## 오늘의 기도

혜 능 | 마하보디상담대학 행정실장

저물어 가는 저 해와 같이  
지극히 머리 조아립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힘겨웠을 겁니다.

가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처에서  
모두가 그렇게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루,  
또 하루  
살아가는 동안 늘 생각 속에...

하지만, 부처님!  
당신이 계시기에 당신의 가르침이  
지금 이 순간 함께 살아 움직이기에  
겸허하게 합장하며  
가만히 하루를 내려놓고  
잠시 이렇게 모든 시간을  
오랫한 나와 함께 합니다.

영롱하게  
밝게  
여여하게  
그것이 노력이었음을,  
그것이 보람이었음을  
...  
...  
...  
이 순간 그 모든 시간을 정화시켜가는  
참다운 주인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원천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참된 주인되어 그 힘겨운 하루가  
빛을 받은 견고한 다이아몬드처럼  
모두를 환희롭게 하고  
생명으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  
모든 이에게 그 빛을 잃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하소서. 卍

Bodhisattva



**1 봄학기 개강(CPE교육/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

CPE교육(3월 5일) : 2010년 3월 5일 CPE 봄학기에 교육생 6명이 입학하여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3월 6일) : 2010년 3월 6일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에서는 입학식과 함께 2기생들을 맞이하는 환 영식이 있었다. 입학식에는 위덕대의 장익교수, 김경일교수, 최연철 교수 등이 함께 자리를 빛내 주었다.



**2 명상교육 (사마타 위파사나 명상교육/위파사나 선정수행)**

사마타 위파사나 명상교육(3월 7일 ~ 14일) : 진경스님을 모시고 스님들 20여명이 7박 8일동안 사마타 위파사나 명상교육을 마쳤다.



위파사나 선정수행(3월 25일 ~ 29일) :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 특강으로 성오스님을 모시고 4박 5일의 위파사나 선정수행이 있었다.



**3 자제병원 건립을 위한 대법회**

천일애행복기도(4월 18일) : 정토사 관자재회는 자제병원 건립을 위한 대불사의 장정을 알리는 전주곡으로 큰스님초청 천일애 행복기도 대법회를 개최하였다.



Bodhisattva

**4 법화경 500일 기념법회 (4월 24일)**

지난 4월 24일에는 법화경 500일 기념일을 맞이하여 성오스님을 모시고 기념법회 및 법화경 전품 철야독송기도정진의 시간을 가졌다.



**5 능행스님 <이순간> 출판사인회 (5월 9일)**

5월 9일 조계사에서 능행스님의 법문과 더불어 새로 출간된 스님의 저서 <이순간> 출판사인회가 있었다.



**6 제등행렬 (5월 12일)**

지난 5월 12일 울산에서 "2010 자비나눔" 제등행렬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통도사를 비롯한 울산지역의 각 사찰에서 준비한 각종 캐릭터와 함께 흥겨운 행렬이 이어졌다. 마하보디교육원에서는 능행스님과 공동체의 스님 및 현대자동차 불자회, 정년회 등과 사물놀이패가 한바탕 놀이마당을 가지면서 흥겨움을 더했다.



기 증	
사진	정암스님
글씨, 그림	충주 석종사 혜국스님, 오대산 육수암 혜운스님, 충청도 성천스님 성전스님, 부산 소아보살님, 법주사 영원스님, 대구 혜월스님 법성선원 신원스님, 금강심 보살님, 학림사 수환스님

물 품	
쌀 1가마니	덕비, 양등이장, 학림사
나물 4관	전종찬
꽃	정정화
그릇	고헌사
차량지원	정찬영, 김도진, 관음사어린이집

공 연	
지휘자	청공거사 / 반주자 : 김보성
실내악단	경주 신라문화원 아리솔
섹스폰연주	박준모, 조영미
합창단	언양 석남사, 부산 흥법사, 부산 관음사, 울산 해남사, 부여 보리사

후 원 금	
김창숙   조용자   평등각   배영순   송인수   박말식   강문자	
송진영   김순규   조원영   김인수   배종신   금강지   류옥연	
해인심   백용자   별 이   김치현   원만성   김동준   향 립	
배춘옥   백정순   법 일   환희주   동 아   나 모   문 혜	
내원암   23기 호스피스	

음 식	
• 밥 : 정념회	• 국수 : 부여보리사
• 잡채 : 대구 대경산악회 봉사단체	• 전 : 부산신법성선원 자비회
• 떡 : 경주 함월사	• 샐러드 : 팔공산 법성사
• 과일 : 포항 관음사 / 부여 보리사 유동선부부	• 커피 : 동해 박삼현
• 요쿠르트 : 선재회	• 다도 : 울산 석정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소재  
· 건축면적 : 지하 1층, 지상 4층 3,636㎡ (1,100평)  
· 병 상 수 : 70병상  
· 주요서비스 : 호스피스, 완화의료, 재활, 외래, 가정간호, 의료봉사 등

완화의료전문

## 자제(慈濟)병원

자제병원은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들의 희망입니다!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들에게 전문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자제병원은 죽음을 통한 삶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품위 있고 존엄한 삶에 대한 학습은 물론 평온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전인적인 돌봄과 지지를 제공하여 삶과 죽음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 함께 베푸는 나눔!

전문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민들을 위한 종합의료복지타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자제병원은 한분 한 분의 소중한 참여로 건립됩니다.

건/립/후/원/계/좌

농 협 401131-51-075952 국민은행 713701-01-140932 (예금주 : 재단 정토사관자재회)

● 자제병원 건립 사무국

689-823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Tel : 052)254-2340, 2341 Fax : 052)254-2347

http://jungtoh.com E-Mail : jungtoh@cpebu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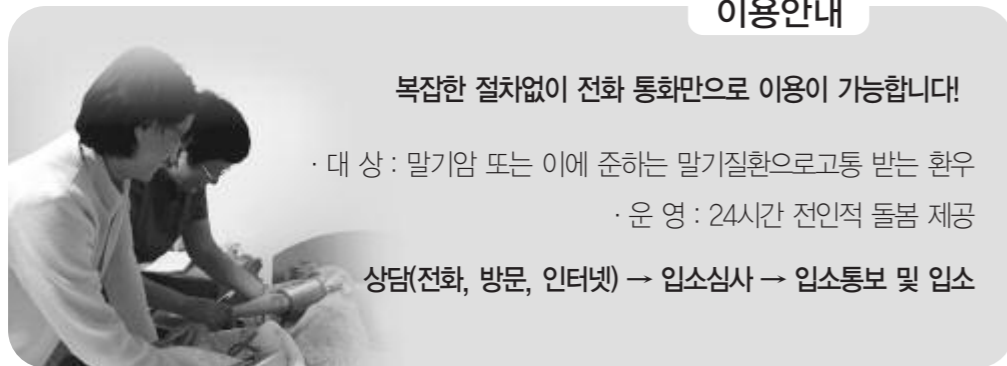


불교계 최초의 독립형 호스피스인 정토마을은  
치유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우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자비 실천의 사랑으로 성심을 다하는  
간호와 지지를 24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삶의 마지막 동행... 정토마을이 함께합니다.

소리없이 외치는 병든 생명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열어놓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우의 통증관리와 영적지지, 다양한 Case 연구를  
통해 정토마을은 21세기 발전된 호스피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 이용안내



**복잡한 절차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 상 : 말기암 또는 이에 준하는 말기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우
  - 운 영 : 24시간 전인적 돌봄 제공
- 상담(전화, 방문, 인터넷) → 입소심사 → 입소통보 및 입소

#### 정토마을호스피스

363-871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Tel : 043)298-2258/ Fax : 043)298-1457 http://jungtoh.com hospice@cpebud.com

### 후원 참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작은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후원회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인연은 삶의 마지막 종착역  
에서 고통 받는 환우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정토마  
울은 물론, 병들고 가난하여 고통 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사  
랑과 희망을 나누어줄 시설의 건립과 운영에도 커다란 밑거  
름이 될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빠르고 간편하게 후원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후원방법 : 자동이체(CMS), 무통장입금, 지로입금, 물품후원, 복돼지 분양
- 후원접수 : 전화, 홈페이지, 방문
- 후원계좌 : 농 협 401120-51-016794  
국민은행 713701-01-001909 예(금)주) 재단 정토사관자재회

●● 자동이체(CMS) 후원신청을 하시면 전화 한 통으로 신청, 변경, 해지가 가능하며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후원금을 납부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당신의 고귀한 기부금은

- I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의 기금으로
- II 불치병 환자를 비롯한 특히, 암환자들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 III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익사업 기금으로 쓰입니다.

#### 재단정토사관자재회

363-871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Tel : 043)298-2258(代) Fax : 043)298-1457 http://jungtoh.com jungtoh@cpebud.com



# “진정한 임상전문상담과 치유사로 탄생되는 CPE교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0년 CPE 여름학기 교육 접수중 !!!  
(2010년 7월 10일 개강)

임상보디사트바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이란?

보디사트바를 키워내는 임상전문 훈련교육으로서 병원·학교·가정·사찰 등 중생의 고통이 있는 모든 곳에서 실질적 영적돌봄을 경험하며 자신의 치유와 돌봄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교육입니다.

## CPE(Clinical Pastoral Education) 교육 일정 안내

- 과 정 : 봄학기(3월~6월), 여름학기(6월~8월) 가을학기(9월~12월)
- 기 간 : 16주간
- 일 정 : 봄·가을학기: 매주 금요일 / 여름학기: 토·일요일
- 시 간 : 오전10시 ~ 오후 5시 30분
- 인 원 : 8명 (정원)
- 자 격 : 스님, 의료인, 교사, 복지사, 임상 상담과 치유에 관심있는 모든 분

## CPE(Clinical Pastoral Education) 배움 과정

임상환경		교육환경
내담자 그리고 직원과의 관계	경험	그룹동료와 Supervisor의 관계
Case Study를 작성하는 과정&토론	성찰	사례연구 세미나 Supervision시간/개인 및 종교학적 성찰
상담과 치유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영향을 주는 배움	통찰	임상강의/관련 서적 읽고 연구
내담자의 가계도분석		가계도분석 세미나
전이 역전에 대한 분석 직원과 한 팀원이 됨	분석	신념체계 및 삶의 패턴양식 이해하기 자신과 동료들을 지도하는 리더십을 배움
헌신과 돌봄을 배움실전	통합	개인과 임상보디사트바를 위한 영적 성장과 새로운 인식변화

### 정토마을 연양 마하보디센터 임상보디사트바교육(CPE)

울산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 138-1 마하보디교육원 3층 CPE센터

Tel : 052 264 0117 · 052 264 0209 · <http://jungtoh.com>, <http://cpebud.com>

## 2011학년도 입학생모집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은 심리치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대학입니다. 불교의 기본교리와 수행방법, 상담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명상을 통한 심리치유방법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특히 임상과 실습을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심리치유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성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입학안내

#### 1 지원자격

- ① 지도자과정
  - 학사학위를 미취득한 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석사과정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③ 박사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교육연한 및 시간

- 지도자과정은 4학기, 석사과정 5학기, 박사과정 4학기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20분 - 오후5시30분

#### 3 학위 및 자격증 취득

- 지도자과정 이수 시 본 대학원의 졸업증명서와 명상심리치유사 자격증 취득
- 위덕대학교와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위덕대학교지도자과정 수료증 취득
- 위덕대학교와 교육협정에 의거한 석·박사학위 취득

#### 4 전형일정 · 제출서류와 입시상담 문의

- 전화 : 행정실 (052)264-0180, 행정실장 (손전화)010-2051-1457
- 홈페이지 : <http://www.mahacounseling.com>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 이사장





불교 호스피스 선구적 실천가이자 베스트 셀러 작가, **능행스님**  
15년 구도의 길에서 만난 1,000여 명의 **죽음을 배운 이야기**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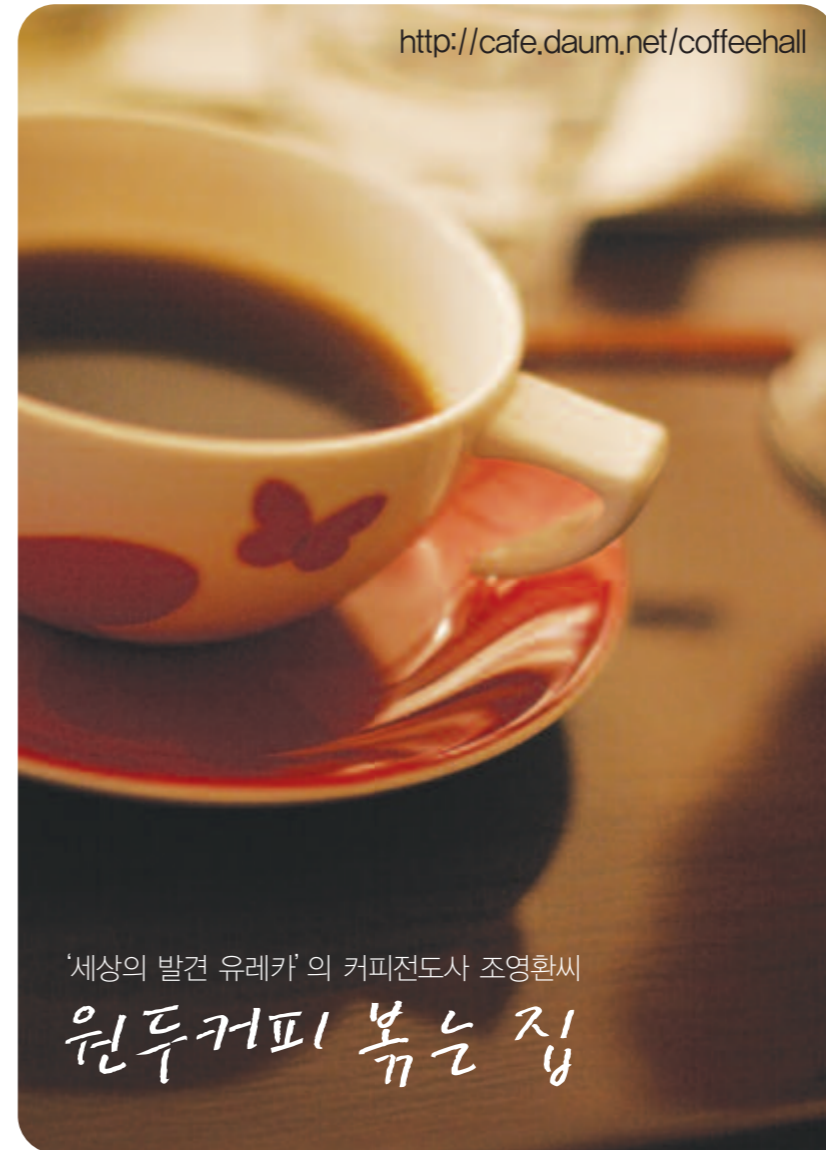


## “지금 이 순간,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

### 저자 능행스님

호스피스가 곧 수행의 도구라는 능행 스님. 1996년 충북 청원군 구녀산 자락에 정토마을을 건립해 말기환자들의 마지막 삶을 보살펴왔다. “죽음과 온전히 직면할 때 이 순간의 삶이 바로 선다”는 깨달음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천일애(愛) 행복기도운동’을 시작했다. 동참자들이 천일 동안 인류의 평화와 행복, 안전을 위해 기도하면서 매월 3만원씩 3년간 또는 일시불로 108만원을 보시한 돈으로 아무도 돌보는 이 없이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한 자제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 내게 있어 행복이란, 오늘 하루 숨 쉬고 밥 먹고 웃고 잠자리에 드는 것,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 무대에 서는 것, 그렇게 죽음과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아닐까 싶다. -나문희, 배우
-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 ‘고귀한 삶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책! -도종환, 시인
- 행복한 삶과 마지막 순간에 대한 새로운 통찰 -경향신문
- 이순간 ‘나는 왜 존재하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화두를 던지는 책! -매일경제
-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가장 순수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목격했다. -조선일보
- 생의 마지막 순간에 삶의 존엄성을 회복한 환자들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 -한국일보
- 생사를 꿰뚫는 통찰력으로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음의 의미를 묻다. -한국경제
- ‘아름다운 지금 이 순간’ 을 위한 지상 최고의 선물을 안겨준다. -한겨레



‘세상의 발견 유레카’의 커피전도사 조영환씨  
**원두커피 볶는 집**



### ‘순수100% 블루마운틴을 만날 수 있는 곳!’

세계 각국의 다양한 커피 생두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주문하시면 볶아서 보내드립니다. 두 봉지(200gX2) 이상 주문하시면 서비스로 필터를 드립니다.



### 커피전문학원 오픈 예정

- 주 소 : 대전 중구 은행동 72-17호(1F)
- 영업시간 : 오후 12 : 30 ~ 21 : 30
- 전 화 : 042)256-4846, 221-6200